금주의 법구–〈법구경〉
분에 넘치는 이익을 바라지 말라.
분에 넘치는 이익은 어리석게 한다.
적은 이익으로서 부자가 되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74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6년 음력 1월 2일) 2022년 2월 2일 수요일



불심으로 노숙인 마음충전 겨울 한파를 이겨내기 위한 노숙인들의 보금자리, 다닥다닥 붙은 1평짜리들이라 해서 붙은 이름 쪽방촌에 이들의 마음치유를 통한 자활센터 '마음충전소'가 문을 열었다. 1월 27일 쪽방촌에서 열린 마음충전소 개소식에서 충전소를 마련한 마가 스님(사진 왼쪽 세 번째)과 자비명상 지도자 스님, 대중들이 오색실을 뜯으며 개소를 축하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글=노덕현 기자 · 사진=박재완 기자

'보물' 보타사 마애상 곳곳 균열 '심각'

1999년 후면 도로 증설하며
보물 마애보살상 훼손 시작
얼굴 등에 균열… 일시 보수
조사 보고서 원상 복귀 권고
市 "영향평가 실시 후 조치"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고려시대 조성된 보물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 곳곳에 균열이 가는 등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인은 마애불 뒤편으로 도로를 확장하며 이뤄진 발파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다.

2014년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된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은 보타사 대웅전 뒤쪽 암벽에 조각된 마애상이다. 전체적으로 넓은 어깨에 양감이 강조돼 신체가 당당한 모습이며 고려시대 조성된 것으로 전해진다. 크기가 5m나 되는 거불(巨佛)로 수법이 상당히 우수하다. 불상을 연구한 문명대 동국대 명예교수는 유사한 옥천암 보도각 백불과 함께 "서울의 쌍벽을 이루는 마애존상"이자 "고려시대 남경(南京)을 수호하고자 조성된 마애 제석천상"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이 같이 중요한 문화재가 훼손이 진행되고 있다. 사찰 측에 따르면 보살상 얼굴 중앙과 좌우 이마에서 뺨까지 세로로 긴 균열이 생겼고, 오른쪽 귀 부분에도 가로로 균열이 발생했다. 이외에도 왼쪽 귀 일부와 목 부분 등에 손상이 나타났다. 박상규 보타사 행정실장은 "현재는 일시적 보수로 아래서 올려다보면 손상 부분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지만 사실 심각한 훼손으로 판단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보물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의 얼굴 부분. 이마 중앙부터 세로로 균열된 부분을 보수한 흔적이 확인된다. 사진제공=한국미술사연구소

보타사 마애보살좌상에 균열이 생긴 원인으로는 1999년에 이뤄진 도로 확장 공사가 지목되고 있다. 보타사 측은 "마애보살상의 암반 상면 후면으로 5m 정도 떨어진 구도로의 능선 암반을 5m 깊이로 모두 절단해 신도로를 개설했으며, 여러 차례 항의했으나 공사를 강행했다"면서 "이 과정에서 폭 15~20m, 길이 15~30m, 깊이 5m나 되는 암반을 모두 발파해 절단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공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실제, 문화재청과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아 전문가 10여 명이 조사한 보고서에서는 1999년 해당 도로를 확장하는 공사를 한 뒤 석불에 금이 가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했다.

마애보살상을 조사한 문명대 교수는 "당시 서울시유형문화재였던 마애보살상에서 5m 밖에 이격되지 않는 능선 암반을 발파해 파괴한 것은 명백한 문화재보호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마애보살좌상은 후면 암반을 훼손한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보타사는 절단 파괴된 능선 암반에 대한 원상복구와 마애보살상 보존을 위한 누각식 보호각 조성을 요청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의견을 함께 한다. 한병일 한국문화재보존연구원장은 '서울 보타사 마애보살상과 암반의 보존처리'를 통해 "보타사 마애보살상의 경우 올바르고 영구적인 보존을 위해 마애보살상 주변 환경의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사찰의 중장기적인 정비는 물론 마애보살상 배면도로의 이전도 서울시와 협의해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무룡 ㈜태창 대표는 '보타사 마애보살상 훼손 암반의 복원 및 보호각' 소논문에서 "도로 확장에 의해 굴착된 암반의 복구는 잘려나간 암반의 뒷부분을 더 이상 풍화돼 갈라지지 않도록 보존처리하고 보살상 보개부분이 앞으로 밀려 쏟아지지 않도록 보강해 전체적으로 힘의 균형을 안정시켜야 한다"는 등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현재 서울시는 문화재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와 관련한 구체적 시행규칙이 2001년에 제정돼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보타사의 지속된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영향평가를 실시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 문화본부 관계자는 "진동 소음 전기 계측 등을 실시하고 이에 따른 과학적 분석 결과와 관계 전문가 자문을 통한 영향성 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도로 복원 부분은 도로 계획 관련한 부서가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애보살상 균열에 대한 조속한 보존 행정 등이 이뤄지지 못하면서 가장 애가 타는 것은 보타사 사중이다. 갈라지는 마애보살상을 바라볼 수 밖에 없어서다.

보타사 주지 지은 스님은 "부처님 제자로서 성보를 제대로 지키지 못해 송구할 뿐"이라며 "현재 신설도로를 우회시키고, 능선을 복원해 마애불을 최소한 지지해주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마애보살상 보존을 위한 보호각도 하루 속히 설치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모든 불교는 삶서' 틱낫한 스님 입적

1월 21일, 세수 96세 · 법랍 80년

세계적 불교지도자이자 평화인권운동가로 추앙받았던 틱낫한 스님이 1월 21일 원적에 들었다. 세수 96세, 법랍 80년.

미국 〈뉴욕타임즈〉 등 외신과 현지 언론에 따르면 틱낫한 스님이 세운 프랑스 불교 명상공동체 '플럼 빌리지'는 이날 "스님이 베트남 후 티우 사원에서 입적했다"고 밝혔다.

틱낫한 스님은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와 함께 '살아있는 부처' '영적 스승'으로 꼽히는 인물이다. 숭산 스님, 달라이 라마, 마하 고사난다와 함께 '세계 4대 생불(生佛)'로도 불렸다.

1926년 베트남에서 태어난 스님은 16세에 출가해 24세 무렵 베트남 최대 불교연구센터인 인광(An Quang) 불교연구원을 설립했다. 1960년대 미국으로 건너가 프린스턴 대학과 컬럼비아 대학에서 비교종교학을 공부했다. 이후 베트남 전쟁이 발발하자 전쟁 반대 메시지를 내 조국에서 추방됐으며 전 세계를 돌며 비폭력 메시지를 전하는 연설과 법회를 열었다. 프랑스에 명상공동체 플럼 빌리지를 세우는 등 서구에 선불교 교리를 전파했다.

스님은 줄곧 마음 수련과 명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늘상 "고통을 받는 법을 알게 되면 고통을 줄일 수 있으며, 고통을 이용해 행복과 환희를 느낄 수 있다"고 설파해왔다. 2014년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 여생을 고향에서 보내기 위해 2018년 베트남으로 돌아왔다. 사후에 시신을 화장해서 전세계에 있는 플럼빌리지 명상 산책로에 뿌려달라고 유언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틱낫한 스님의 열반 소식에 각계각층에서 추모 메시지가 이어졌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1월 24일 발표한 애도문에서 "선사께서 평생을 걸어 온 행장은 전세계인들 마음의 평화와 공동체의 화해 · 치유를 위한 보살도의 삶 그 자체였다"며 "스님의 위대한 실천행은 전세계인 삶의 지표가 될 것"이라고 추모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23일 SNS를 통해 "스님의 '걷기 명상'에 많은 공감을 느꼈다"며 "'마음 챙김'을 늘 강조한 스님의 행복론은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불러일으키며 삶의 지침이 됐다"고 애도했다.


1926년 베트남 중부 출생
1942년 16세 나이로 출가
1960년 미국 프린스턴대학 등서 비교종교학 공부
1963년 반전 운동참여로 남베트남 정부에 의해 추방
1973년 프랑스 장기 망명
1982년 프랑스 보르도 근교에 플럼 빌리지 창설
1990년 미국에 그린 마운틴 수행원 설립
2013년 오대산 월정사, 범어사 등서 법회
2014년 뇌졸중으로 건강 악화
2022년 베트남 후에의 뚜 히에우 사원서 입적

평화운동으로 부처님 가르침 전파
원행 스님 "위대한 실천행" 애도
부산 관음사 등에 분향소…49재도

달라이라마도 1월 22일 공식채널을 통해 틱낫한 스님을 따르는 베트남과 전 세계인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틱낫한 스님은 1995년과 2003년, 2013년 세 차례 한국을 방한한 바 있다. 당시 스님은 월정사, 범어사 등에서 한국 불자들을 만나 힐링과 상생, 행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특히 두 번째 방한은 '걷기명상 붐'을 일으킬 정도로 큰 센세이션을 일으켰다.

이런 인연으로 한국불교계도 분향소를 마련, 스님의 입적에 애도를 표했다.

자비명상 대표 마가스님은 1월 22일 서울 현성정사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용인 행복선원(선원장 연암)도 분향소를 마련해 조문객을 맞았으며 송광사 부산분원 관음사(회주 지현)는 경내 수광보전에 분향소를 마련했다. 관음사는 1월 28일 초재를 시작으로 매주 금요일 틱낫한 스님의 극락왕생을 염원하는 49재를 봉행할 예정이다. 부산 흥법사는 1월 26일 관음재일을 맞아 사시불공에 이어 오전 11시부터 틱낫한 스님을 추모하는 법석을 마련했다. BTN불교TV 무상사도 1월 23일 2층 선방에 빈소를 마련하고 스님의 원적을 애도하는 한국과 베트남 불자들의 조문을 받았다.

〈추모특집 5면〉

임은호 기자 imeunho@hyunbul.com

설 연휴 관계로 다음주 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은 불교여성개발원(이하 여성개발원)을 설립하여 지난 20여 년의 세월 동안 종헌종법에 따라 자율적 활동을 보장하며 발전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2018년, 2019년 여성개발원의 이사들이 불법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하고 정관을 개정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연직 이사장인 포교원장의 권한을 침탈하고 조계종 종헌종법 우선 적용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포교원은 지속적으로 여성개발원에 이사장 권한 회복과 정관 복구를 지시하였으나 이사진들은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11월 30일 공문을 통해 정관 복구를 거부하였고 2022년 1월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포교원의 방침을 따를 수 없음을 공식 천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여성개발원의 민주적 의사결정구조인 이사회나 총회의 결과가 아니라, 일부 운영진들의 독단적 결정으로 여성개발원 내외에서 여러 이견이 제기되고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은 종헌종법을 수호하고 포교단체의 질서를 바로잡기 위하여 뼈를 깎는 아픔을 안고

불기2566(2022)년 1월 28일자로 불교여성개발원 포교단체 해지를 공고합니다.

여성개발원은 더 이상 "대한불교조계종" 명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종단의 각종 지원 역시 중단됩니다. 종도로서의 의무를 방기하고 종단의 지도를 거부한 여성개발원의 이사들은 대한불교조계종의 중앙종무기관 및 산하기관(단체), 소속 사찰, 각종 위원회 등에서 소임을 맡아 활동할 수 없습니다.
각급 종무기관과 사부대중은 이를 유념하여 종단 정체성 확립과 종헌종법 수호를 위한 포교원의 조치에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나아가 제8대 포교원은 우리 불교계의 주요 활동영역인 '여성 포교'에 대해 새로운 조직적 대안을 모색할 것이며, 기존 여성개발원 회원들 중 포교원의 지도 방침을 따르고자 하는 분들을 포함하여 종단의 각 분야에서 중추적으로 활동하는 여성불자들을 모두 포괄하는 여성포교단체를 설립할 예정임을 밝힙니다.

불기 2566(2022)년 1월 28일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장 범해